

고령화 사회에서의 주거환경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 주택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의 접근 -

Conversion of Paradigm on Residential Environment in Aging Society

- Approach to Urban plan -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Kim, Tae Il

1. 들어가며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을 넘어 거의 동시에 업무를 수행 처리할 수 있는 무한한 정보통신시대, 그리고 단일 국가차원의 문화와 무역, 경제 생산이 아니라 이제는 문자 그대로 세계화되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의 문화적 교류와 무역, 경제 생산 체제로 변해가는 지구촌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변화는 고령화이다.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사회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단일 국가차원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직결되는 요소이며, 따라서 경제활동과 사회복지 등 많은 제반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고령화는 선진각국이 이미 오랜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인구사회학적 현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인 고령자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신체기능저하로 인한 의료 및 보건, 간호측면에서의 케어서비스제공형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의료나 보건,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계층에 대한 처우문제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노인 인구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건강하고 자립생활이 가능한 혹은 가능하도록 재가(在家)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질의 고령자 주택 공급, 그리고 의료 및 보건서비스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부양체계구축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의 방향

우리나라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의 고령화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독신과 부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의료, 보건복지시설확대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아동인구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같은 근린시설의 기능저하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인구계층에 대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복지의 기능강화라는 큰 틀에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구축, 그리고 아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사회기능의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등 지역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대응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접근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고령화대응주택(Universal Designed Housing)의 개발과 보급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관련법안 제정이 검토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용으로 건설하는 등 고령자의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해지고 있는 적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주거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단계에서 부터 주택내의 물리적인 장애물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즉 주변환경에는 너무나 많은 물리적 장애로 인해 불편을 느끼기에 앞서 안전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왔는데 건축 및 도시디자인에 도입되고 있는 개념이 「Barrier-free design」¹⁾, 「Universal design(UD)」이다.

기본적으로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FREE DESIGN)」의 개념은 장애의 제거, 즉 시각적 물리적 장애에 대한 해소를 통해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Universal design(UD)」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이더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물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협의의 개념과 의자, 책상, 의류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적용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문제 즉 『이동성』 『안전성』 『편리성』 그리고 『경제성』 확보라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주택의 수준은 직접으로 거주자의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의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택에서 살고 싶어도 주택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애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부득이 거주형태를 변경(Relocation)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고령기에 있어서의 거주형태의 변경은 고령자에게 갑작스런 주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에 관련된 연구보고에 의하면, 거주지를 바꾼 많은 고령자가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는,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의 공급은 단순한 개별적인 주택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지역복지의 기능적 전개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주거환경 요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노말라이제션의 개념, 즉 고령자나 장애자의 수용 격리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공존공생의 실현이다.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이 종래의 수용형 복지시설을 중심의 「격리보호형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사회에서의 정주를 원칙으로 한 「지역정주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2.2 지역사회내의 기존시설활용에 의한 지역복지 기능의 강화

지역복지확립의 시점에서 보면, 지역자원의 활용을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원활하게 다세대와의 교류가 도모되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에게 있어, 지역에 있는 기존시설은 오랜 세월이 걸쳐 이용해온 친숙해지기 쉬운 시설들이다. 그 곳에 일정한 교류가 가능한 공간마저 갖추어져 있다면, 각 세대가 서로 인식하고 알게 되어 근린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것이다.

둘째는, 공적 복지서비스기능을 보충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적 의료,보건,복지서비스 이외에 제도권내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상적 생활지원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지원문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역주민 스스로의 공동 혹은 연대 조직구성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지방분권의 문제와 재정적 부담 문제와 같은 세력관계를 만들어내는 모든 제도의 틀을 극복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 및 보건복지시설건설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보조금제도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할수록, 지방자치체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재정부담의 문제와 관련한 관계기관간의 세력관계를 극복하는 의미에서도 기존시설의 활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방자치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보다 지역에 밀착된 재가복지기능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는, 지역에 존재해온(혹은 존재할) 잠재적 복지 기능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장소에서 사회공동체의 재생산을 지탱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고령자복지시설이 지역 내에 건설됨으로써, 오히려 지역커뮤니티의 기능이 저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상호협력의 연계관계를 유지하고 공존하는 의미에 볼 때, 지역의 기존시설활용은 잠재적 복지를 양성시키고, 지원하는 유력한 수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입장에 있는 고령자 및 그 가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지역거점시설을 일상복합성과 전문성 양쪽의 기능을 구비하고 재가고령자의 자립생활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복지시설들이 자택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많아,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게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재가복지를 제공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

1) 우리나라에서는 「무장애 디자인」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은 지역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2.3 주택과 의료,보건,복지시설과의 연계 정비

고령자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사회에서 정주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기반인 주택을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의 제공 등 물리적인 측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생활상담원이나 가정봉사원에 대한 생활상담, 긴급시의 대응, 가사의 도움, 혹은 건강관리를 포함한 의료적인 행위등과의 적절한 연계에 의한 지원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병자가 없는 장애우가 자립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갈수 있도록 물리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질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우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부담을 보다 가볍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주택은 지역의 의료, 보건, 복지시스템 체계 속에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계수법의 형태로서는 관련된 여러 시설과의 복합화 ,그리고 각기 독립된 기능을 유지해 가며 연계관계를 갖는 네트워크화의 형태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령자주택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환경조건에 맞추어 지역의 의료, 보건, 복지시설과 어떻게 연계를 해 나갈 것인가, 주택 및 거주환경정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4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의 보장

앞서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관련 의료복지시설과의 연계구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환경의 정비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택과 관련 복지시설의 연계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또한 고령자 자신의 주택내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한 자유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수 있는 이동 공간의 확보, 둘째 인식하기 쉬운 거리장식물(street furniture)의 정비와 구축, 셋째 각종 안내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3. 맺음

대다수의 고령자는 살아왔던 주택,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고령자의 희망과는 달리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양로시설 이나 요양시설에 옮겨 살 수 밖에 없고, 계속 살려고 하여도 고령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주택, 적절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21세기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유·공용·공존 이념의 실천적 고령자 주택 및 주거환경계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존(共存)과 공유(共有) 이념의 실천을 위한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에 초점을 두고 지역시설과 고령자주택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정비형태의 기본형태, 즉 「복합화」와 「네트워크화」에 대하여 연계정비방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개별적인 고령자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의료 및 보건복지시설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지역계획적 관점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주택과 시설의 위치와 기능적인 상호보완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